



식품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싱가포르의 선택



식품 수입의존도 90%인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현재 170국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90% 이상의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사전조치의 결과로 2019년 2년 연속 글로벌 식량 안보 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3가지 식품 트렌드를 언급하며 자국이 이러한 변화에 취약하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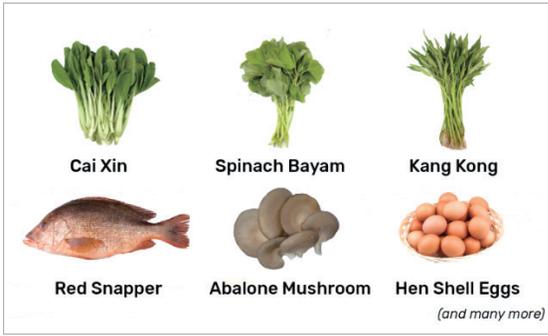
첫째, 인구 증가로 2050년 전세계 식량 수요는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

둘째, 기후 변화는 기온상승, 경작지 손실 및 불규칙한 기상 패턴의 증가를 통해 전세계 식량 공급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

셋째, 국제 무역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면서 자국 이익 추구 심화

정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제시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단일 식품 공급원에 대한 의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입원 다양화, 두 번째는 해외 공급 중단 시 완충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 기업 성장 지원, 세 번째는 현지 기업이 해외로 확장하고 식품을 다시 자국으로 수출하도록 해외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지 자체 생산중인 주요 식품과 현지산 식품 로고

출처 :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싱가포르 현지 식품 생산 현황

2019년 싱가포르는 계란 528백만개, 엽채류 12,684톤, 어류 4,693톤을 자체 생산하였는데 이는 각각 전체 소비의 26%, 14%, 10%에 해당하는 생산량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자체 식품 생산력을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30by30'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도시농업 정책

'30by3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올해 5월 현지 주공아파트(HDB) 내 다층 주차장 옥상을 도시농업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9개 부

지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단일 부지에 대한 74개 제안서와 클러스터(복합) 부지에 대한 14개의 제안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부지는 채소 또는 기타 식량 작물 재배 및 관련 목적을 위한 제품의 포장/보관으로 활용 가능하며 임대료 제공되어 3년씩 두 번 갱신 가능하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공개입찰을 통해 옥상 부지를 도시농업을 위해 추진할 계획에 있다.

Key Point

싱가포르 식량안보 강화책 중에 하나인 '현지 기업이 해외로 확장하고 식품을 다시 자국으로 수출하도록 해외 성장 지원'하는 현지 정책을 염두해야겠다. 국내 수출업체는 싱가포르 현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싱가포르 정책변화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싱가포르 주차장 및 아파트 옥상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 모습

출처 : mothership 웹사이트

출처 : ① Singapore Food Agency - <https://www.sfa.gov.sg/food-farming/sgfoodstory> -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joint-hdb-sfa-media-release---tender-closing-for-9-hdb-mscp-rooftop-sites-for-urban-farming/ef9900662d8448ea2878d5913775938.pdf> ② Mothership - <https://mothership.sg/2020/05/urban-farming-singapore/> -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new-label-identifying-local-produce-rolled-out>